

# 문학의 상상력과 ‘공상’의 함의

-김우진의 <공상문학> 연구

권정희\*

### <차례>

1. 머리말
2. <공상문학>의 성립 -‘Romanticism 시대’의 독서
3. ‘공상’의 함의 -장르표지와 “가정의 비극”의 연관성
4. “문수 자살” 모티프 -‘청년의 고뇌’라는 스펀들
5. 맺음말

### <국문초록>

이 글은 극작가 김우진(金祐鎭)의 소설 <공상문학(空想文學)>(1913년)의 문학사적 의미를 규명하려는 것이다. 그간 김우진 연구는 근대연극사 안에서 희곡 작품이 평가의 중심을 이루면서 미발표 소설 <공상문학>은 습작으로 간주되어 학문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개별 연구로서 <공상문학>은 서양 소설과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공상문학>의 실증적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언급된 바 없는 일본 문화를 시야에 넣어 작품의 구성 원리와 의미를 조명했다. 나아가 이 글에서는 어떻게 1910년대 서양 소설과 조선의 소설을 애독하는 문학 지망의 여성 주인공이 조형될 수 있었는가를 고찰했다.

여기에는 ‘진정한 애정’의 문체와 소설 장르 인식이 동시에 작용한다. 즉 동시대 조선의 현실을 담아내려는 실재에 대한 의식과 현실에 부채한 근대소설의 장르적 기반을 ‘공상’ 개념에 의거하여 장르표지와 같은 표제로 표출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점에서 <공상문학>은 다양한 가능성을 내장함을 밝혔다.

주제어: 김우진, 공상문학, 근대소설, 가정비극, 매개성, 가정소설

## 1. 머리말

김우진(金祐鎭, 1897-1926)은 근대극의 기틀을 다진 선구적인 극작가라는 평가 속에서 소설 <공상문학>(1913년)은 거의 주목 받지 못했다. 그러나 <공상문학>은 “문학으로 인하여 여자 일신의 비참한 운명”을 겪게 되는 작가 지망의 여주인공이 등장하는 당대 유례없는 특이한 서사이다. 여성의 비극적 운명이 ‘문학의 취미와 진의’와 관련하여 전개되는 <공상문학>은 1910년대 조선을 배경으로 가정과 문학 주변 풍경을 소묘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이 글에서는 동시대의 신소설과 변안소설 및 번역소설과도 다른 <공상문학>의 성립 요인들을 탐색함으로써 장르표지와 같은 표제와 작중에 명시된 “가정의 비극”의 연관성 속에서 의식된 장르 기반과 ‘공상’의 함의를 규명할 것이다. 이로써 “16세 때인 1913년에 지은 소설 <공상문학(空想文學)>은 창작당시에 발표했다면 소설사에서 획기적인 위치를 차지했을 문체작”<sup>1)</sup>이라는 창작 당시의 발표를 전제하는 조건 속에서 획득되는 <공상문학>의 소설사의 ‘획기적인 위치’와 어떠한 의미에서 ‘문체작’인가를 해명하게 될 것이다.

<공상문학>의 선행연구로서는 여성의 근대적 자의식의 자각과 김우진 문학을 관통하는 자유의지의 태동을<sup>2)</sup> 또한 신소설로서의 특징과 문학에 대한 열정의 묘사로서 평가하거나<sup>3)</sup> 김우진의 자전적 환경과 그 이후의 생과 일치하는 점에 주목하여 ‘이룰 수 없는 사랑’의 비극적 이야기로<sup>4)</sup> ‘낭만적인 죽음’과 ‘사랑’의 호응관계로 김우진의 내면을 살펴보는 자료로서<sup>5)</sup> 평가에 따라 강조점은 다르지만 김우진 작가 연구에서 간단히

1)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서울:지식문화사, 2005, 219면.  
 2) 서연호, 『김우진의 동경유학기 체험과 문학사상』, 한국극예술학회 편, 『김우진』, (서울:연극과 인간, 2010, 29면.  
 3) 이은경, 『수산 김우진 연구』, (서울:월인, 2004, 18-19면.  
 4) 유민영, 『비운의 선구자 윤심덕과 김우진』, (서울:세문사, 2009, 97면.  
 5) 윤진현, 『조선 시민극의 구상과 탈계몽의 미학』, (서울:창비, 2010, 56면.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초빙교수

익명의 심사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심사 수정의 조언에서 이 글의 문제점을 파악하면서 재검토하는 기회를 갖게 되었다. 보다 발전된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심사에 돌려져야 할 일이다.

언급하는데 그쳐 별도로 작품 분석이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개별 연구로서는 서양소설과의 비교 연구로 유인순은 비극적인 죽음이 다논치오(Gabriele D'Annunzio)의 <죽음의 승리(The triumph of Death)>(1894)와 유사하다는 유민영의 언급<sup>6)</sup>에 의거하여 비교함으로써 예술관의 유사성을, 토마스 하디(T. Hardy)의 <환상을 쫓는 여인(An Imaginative Women)>(1893) 과의 비교에서는 내용 전개와 유사성과 주인공이 겪는 심리 구조의 대비를 통해 이들 작가들의 시대사조의 영향, 외국문학작품 독서의 완전한 이해와 습득을 통한 확장 단계로 규정짓고 동시대 신소설과 비교하여 신소설과 현대소설 사이의 연결역할을 문학사적 위치로 지적했다.<sup>7)</sup> 손필영은 토마스 하디의 <환상을 쫓는 여인>과 비교하여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은 하디와의 연관성을 시사했다. 유사한 모티프를 비교 분석하여 패러디의 가능성을 지니면서도 수산 자신의 삶을 투영한 소설로 평했다.<sup>8)</sup>

이러한 선행연구를 통해 외국문학의 영향 속에서 김우진 문학의 구축 과정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서양소설과의 비교 연구가 제출된 시점에서 이 글에서는 <공상문학>의 성립을 일본어번역을 매개로 한 서양소설과 조선이라는 다층적 관계의 의미망에서 고찰하여 1910년대 근대소설의 맥락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규명할 것이다. 아울러 연애 서사의 맥락에서 남녀 비극의 서사로 <공상문학>을 이해하는 방식이 내포하는 문제를 논구함으로써 <공상문학>이 1910년대 조선의 현실에 밀착하여 문학 주변을 포착해낸 '문학'과 '공상'의 함의를 분석한다. 이는 <공상문학>의 표제와 “가정의 비극”등 장르적 기반과 서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이 글의 구성은 제2장에서는 <공상문학>에서 기술된 서적과 김우진의 독서 이력을 단서로 1913년을 전후로 한 작가의 인식 지평을

제3장에서는 표제 ‘공상문학’과 “가정의 비극”의 연관성을 통해 장르인식과 ‘공상’의 함의를 제4장에서는 “문스 자살” 모티프의 서사적 의미를 규명함으로써 ‘공상’의 작동 방식의 일단을 고찰하여 다각도에서 <공상문학>의 성립 과정을 조명한다.

## 2. <공상문학>의 성립 -‘Romanticism時代’의 독서

<공상문학>은 문학이 서사의 모멘트가 되어 문학에 뜻을 둔 자아의 실현과 부부의 ‘이정’이 대립하는 구조를 이룬다. 즉 순자와 하련당의 비련의 서사에 초점을 둔 것이 아니라 백하청과 순자의 부부애의 대척점에 문학을 배치하여 문학에의 열망이 ‘가정의 비극’을 발생시키는 서사 구조에서 하련당은 문학 상징의 중심에 있다. 이는 문학을 파멸케 했던 사랑이라는 김우진의 비극적 생애의 징후를 내포하지만 <공상문학>이 외국문화의 영향 하에서 조선의 현실을 살아가는 자기 언급의 작가적 기질과 성찰적 자세를 키워왔다는 점에서 독서에서 배태된 자아의식을 표출하는 김우진 문학의 특질과 연계하여 분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공상문학>의 특이한 작품 세계가 만들어지는 문화사적 맥락의 고찰을 통해 <공상문학> 성립의 일단을 조명한다.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수산 김우진은 1915년인 18세에 규슈(九州) 구마모토현립(熊本縣立) 농업학교에 유학하여 1921년 와세다(早稻田) 대학 영문과에 입학, 27세인 1924년 졸업하기까지 10여년에 걸쳐 일본에 체재하였다.<sup>9)</sup> <공상문학>을 집필한 1913년은 독일 이전 시기이다. 당시 보통학교 및 고등보통학교 시절 교과과정은 보통학교에서 국어와 일어가 각각 주 6시간 고등보통학교에서는 국어와 한문이 주 6시간, 일어는 6시간으로 일어의 강세를 보인다.<sup>10)</sup> 1915년

6) 유민영, 「선각자 김우진의 연극실험」, 한국극예술학회 편, 『김우진』, (서울:태학사, 1996, 54면.

7) 유인순, 「<공상문학>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죽음의 승리> 및 <환상을 쫓는 여인>을 중심으로」, 『이화여문논집』 제9집, 이화여자대학교, 1987.

8) 손필영, 『김우진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9) 양승국, 『김우진, 그의 삶과 문학』, (서울:태학사, 1998.

봄 구마모토 현립 농업학교에 유학한 이후로는 일본어로도 시를 지을 정도로<sup>10)</sup> 김우진의 일본어 실력은 독일 이전 이미 상당 수준이었고 영어 실력도 우수했다.<sup>12)</sup> 부친의 엄명에 따른 1915년의 독일은 구마모토에서 큰 목재상을 하는 숙부가 그곳의 명문학교였던 구마모토 현립 구마모토 농업학교를 소개하여 이루어졌다.<sup>13)</sup> 실학과 양무를 겸비한 부친 김성규의 교육열 높은 가계에서 이른 시기부터 조선 서적계의 유통망과는 다른 형태로 일본어 서적을 입수했을 공산도 적지 않다. <공상문학>에는 월트 휘트먼(Walt Whitman)을 위시하여 빅톨 유고(Victor Marie Hugo)<sup>14)</sup>를 숭배하고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의 <로미오와 줄리엣>등 서양 소설에 탐닉하는 주인공이 등장한다. 문사 하련당이 읽는 <로미오와 줄리엣><sup>15)</sup> 등 서양 소설은 모두 1920년대 조선에 번역되었다.<sup>16)</sup> 1913년에 프랑스 원작의 독서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시 서양소설은 일본어 번역소설의 독서였으며 일본어 서적 수입은 1920년대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sup>17)</sup> 그간의 김우진의 광범위한 독서 이력은 대학 입학 이후의 시기의 것으로 1910년대 초 16세의 독서를 보다 분절적으로 추론해야 한다. 이 또한 어떠한 통로로 일본어 서적을 구입했는지에 관해서는 알 수 없는 것이 현

10) 최창렬, 『개정 중보판 국어교수법』, (서울:개문사, 1985, 53면.

11) 서연호, 앞의 논문, 23면.

12) 나루사와 마사루(成澤勝), 『김우진의 웅분 시절』, 『김우진전집』2, (서울:전예원, 306면.

13) 유민영, 앞의 책, 95면.

14) 한국에서 빅톨 유고의 작품 번역은 <레미제라블>의 일부를 발췌 번역한 정치소설 <ABC계>(1910)로 이후 총152회에 걸쳐 『매일신보』(1918.7.28-1919.2.8)에 연재되었다. 이 때 저본으로 삼은 것은 구로이와 루이코(黒岩涙香)에 의한 일본어 번역이다.(박진영, 『번역과 변안의 시대』, (서울:소명출판, 2012, 389면.)

15) <공상문학>에서 셰익스피어를 뜻하는 일본의 '사옹(沙翁)'과 동일한 한자어의 고유 명사를 구사하여 일본어번역으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접했다는 추정은 유력하다. 당시 일본어번역서로 쓰브우치 쇼요(坪内逍遙)에 의한 <ロミオとジュリエット>(일본:早稲田大学出版部, 1910)가 발행되었다. 이것을 읽었는지에 관해서 확인할 수 없지만 김우진이 부친의 뜻을 거스르며 와세다대학 문학부로 진로를 정하게 되는 심리추이를 독서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16)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I, (서울:을유문화사, 1975, 944면.

17)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서울: 푸른 역사, 2003.

실정이다. 분명한 것은 일본어 서적으로 독서했다는 사실이 연구에서는 의식되지 않은 채 그간 서양 문학의 원작만이 중시되었다는 점이다. 일본어 서적의 독서를 의식하는 것은 <공상문학>을 서양 원작을 내포한 일본 문화의 관계에서 파악하는 새로운 맥락을 창출한다. 일본어서적에 관해서는 합구되었던 그간의 독서목록은 김우진 문학의 이해를 제한하여 작가의 독서 체험에 접근한 일본어 번역서는 서양의 원작에서는 파생될 수 없는 김우진 문학의 심층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이러한 조선의 문화적 맥락에서 1910년대 서양 소설에 탐닉하는 새로운 독자가 어떻게 출현했는가에 관한 문화적 배경은 일본어 서적의 매개와 동시대 조선의 문화적 맥락을 다층적으로 조명하게 할 것이다.

먼저 선행연구에서 비교된 다눈치오의 <죽음의 승리>는 <공상의 문학> 집필로부터 6년 후 와세다 대학 예과에 입학한 1919년의 일기에서 언급된 '모파상(Maupassant)과 다눈치오(D'Anunzio)와 다니자키 준이치로(谷崎潤一郎) 등'<sup>18)</sup>과 같은 해 다눈치오를 다룬 수상 <타씨찬장(陀氏讚章)><sup>19)</sup>이 집필된 데서 연유한다. "보통학교 시절부터 빅토르 위고, 셰익스피어, 다눈치오 등을 사숙"<sup>20)</sup>하였다는 근거가 제시되지 못한 기존의 견해는 10대 초반 무렵 일본어 번역을 통한 서양소설에 접했다는 셈인데 이는 축약 형태의 일본어 번역본의 가능성이 있다.<sup>21)</sup> 서적의 유통 경로라는

18) <心の跡(마음의 흔적)>, 일기, 1919, 3, 18.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 전집』II, (서울:연극과 인간, 2000, 465면.

19) <陀氏讚章>, 1919, 12. 위의 책, 353-357면.

20) 유민영, 앞의 책, 96면.

21) 1912년 발간된 津金馨, 『歐美近代文豪美文抄:英和對譯』(일본:實業之日本社, 1912.2)는 고리키·톨스토이·체홉·도스토예프스키·트루게네프·입센·니체·졸라·모파상·다눈치오·하디·와일드·쇼 등의 작품이 수록된 축약판 영일 대역집이다. "중학상급생, 혹은 그 이상의 청년학생 등"을 대상으로 "근세영어의 해석법을 알게 하고 아울러 유럽 근대문호 일반의 경향을 맛보게 하려고 발행"되었다. 여기에 수록된 구미 작가들은 하디를 제외하고는 김우진의 독서목록과 일치하며 다눈치오의 경우 <죽음의 승리>의 축약이라는 점에서도 수록된 작품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영어 원전은 일본에서 양서 판매라는 별도의 유통 경로로 소비되는 상황을 감안한다면 그간 추정되었던 '일찍부터 영어 원전에 접했다'는 것은 이러한 종류의 서적의 가능성이

독서 문화 전반에 대한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생애와 독서를 대응시키는 것에 제약이 있지만 작가의 독서에서 체득한 교양과 인식을 시기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제 나는 수년 전의 Tolstoy의 설교는 내 귀에 동풍마이다”<sup>22)</sup>라는 1919년의 일기는 인식 변화를 상징하는 기점으로 와세다 대학 입학 이전 시기에 영향을 미친 톨스토이(Lev Nikolaevich Tolstoy)로 대변되는 문학을 부정하는 변화를 고백하는 것이다. 영문학도로서 서양문학에 본격적으로 입문하던 20대와 10대의 독서가 현저히 다른 것은 능히 짐작되는 바이다. 작가 스스로 과거 자신이 흠모했던 문학을 부정하는 혁명적인 인식 전환의 지점에서 <공상문학>이 20대의 독서와는 다른 영향 하에 산출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한국에서 톨스토이의 수용은 『소년』(1909.7)에서 「톨스토이 강령」을 번역 소개<sup>23)</sup>한 것이 최초로 단행본 번역서로서는 <부활>을 <해당화>로 출판한 1918년 이후이다.<sup>24)</sup> 톨스토이 독서가 어떠한 일본어 번역서를 매개로 한 것인지 현재로서는 특정하기 어렵지만 톨스토이 작품의 번역과 번안, 평전 등을 집필하고 일본의 톨스토이 수용에 공헌한 도쿠토미 로카(徳富蘆花)<sup>25)</sup>는 김우진의 일본 유학자인 구마모토 출신이며 메이지 최대의 베스트셀러인 가정소설 <호토토기스(不如歸)>의 저자라는 사실에서 눈길을 끈다. 톨스토이를 숭배하는 도쿠토미 로카와 김우진은 톨스토이를 축으로 하는 관계에서 연관되며 김우진의 독서 이력에서 톨스토이와 도쿠토미 로카는 같은 시기를 접하는 인접하는 작가라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크다. 또한 이는 서양문학의 번역이 완역이 아닌 축약의 형태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근대 초기 일본어 번역의 서적 문화에 많은 시사점을 던진다.

22) <心の跡(마음의 흔적)>, 일기, 1919, 3, 18. 서연호·홍창수 편, 앞의 책, 465면.

23) 권보드래, 『『소년』과 톨스토이 번역』, 『한국근대문학연구』(62)호, 한국근대문학회, 2005.10, 63면.

24) 박진영, 앞의 책, 86면.

25) 阿部軍治, 『徳富蘆花とトルストイ』, (일본)彩流社, 1989. 吉田正信, 『徳富蘆花はトルストイに何を見たか』, 『異文化への視線—新しい比較文學のために』, (일본)名古屋大学出版会, 1996, 95면.

김우진이 도쿠토미 로카의 서적에 접했을 가능성이 있다. 토마스 하디도 톨스토이로부터 극찬을 받았다<sup>26)</sup>는 점에서도 1913년 <공상문학>은 톨스토이가 부정되었던 1919년의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지점 즉 톨스토이가 중심에 자리하는 독서의 산물로 좁혀지게 된다. 1913년 16세 김우진의 <공상문학>을 전후로 한 독서는 와세다 대학 시절에는 사상·철학·사회 과학 등 다양한 독서로 문학의 폭을 넓혀 상당한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다룬치오의 <죽음의 승리>와의 비교 연구를 통해 ‘쇼펜하우어의 미학적 의식의 순간으로서의 죽음의 공통항과 차이’를 추출하는 견해<sup>27)</sup>는 와세다 대학 이후 본격화된 버나드 쇼·니체·쇼펜하우어·마르크스<sup>28)</sup> 등 철학·사상으로 다각화된 이론적 독서 경향을 <공상문학>으로 소급한 결과로 비교의 타당성이 희박하다. <공상문학>의 ‘자유지의’의 발아는 “자유 의 뜻을 들어 자유의 소리를 높이며 자유의 행동을 자유의 뜻으로” 구현하기 위한 여성의 자아 각성 표현과 결부하여 파악되는데 이는 첫 장에 기입된 월트 휘트먼(Walt Whitman)의 영향으로 보인다. 19세기 지배적 이데올로기의 구속에서 자유로운 인간의 자아 찬양과 자유에의 의지, 만민평등의 이상을 노래한 자유시로 미국 사회의 방향을 제시하여 낭만주의 이상 추구하고 흐름을 같이했던<sup>29)</sup> 휘트먼의 시를 일종의 프롤로그로 삼는 인식 지평에서 통념을 뛰어넘는 여주인공이 조형되었다. 당대의 조선에서 돌출하는 여성 인물 조형은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는 자아의 자각의 밑바탕에서 휘트먼 시의 맥락 아래 <공상문학>을 두는 연원을 설명해준다. 1917년 스무 살의 일기에 언급된 다카야마 초규(高山樗牛)가 휘트먼을 수용한 문학 평론가임을 상기할 때<sup>30)</sup>1913년 <공상문학>에

26) 정병조, 『해설』, 『세계문학전집』4, 하이다·모음, (서울)동화출판사, 516-7면.

27) 유인순, 앞의 논문, 40면.

28) 유민영, 앞의 논문, 57면.

29) 허현숙, 『작가해설』, Walt Whitman, 허현숙 옮김, <풀잎>, (서울)열린 책들, 2011, 243-254면.

30) 1925년 6월 김우진은 자작 시 7편을 “나의 精神的 遍路가 限업시 애처로움을 주는”

서 'Romanticism時代' 인식의 연관체계를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공상문학>에 기술된 서양문학을 일본어번역서와의 관계에서 매개의 가능성을 가지화함으로써 새로운 연관관계를 발생시켰다. 물론 일본에서 톨스토이의 수용은 도쿠토미 로카의 번역이라는 단일한 채널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원작을 수용하는 다양한 채널의 가능성 속에서 부상한 도쿠토미 로카의 존재는 “가정의 비극”의 장르인식에 1912년 발간된 <호토토기스>의 번역소설 <불여귀>가 영향을 미쳤다는 제3장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일관된 인식 지형을 제공한다. 이와 같이 일본어 서적의 매개의 관계는 휘트먼에서 다카야마 초규를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쓰보우치 쇼요가 제시되는 독서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맥락을 창출함으로써 1913년 <공상문학>과 김우진의 독서와 인식을 연관 짓는 관계를 추론할 수 있다.

### 3. '공상'의 함의 -장르표지와 “가정의 비극”의 연관성

<공상문학>은 전18장 구성으로 작품 내에서 소요된 시간은 여주인공 생존시의 2년과 그녀의 사후 8년 뒤까지에 이른다. 등장인물의 공간은 백하청의 집, 순자의 친정, 거리 및 상점이 있을 뿐이다.<sup>31)</sup> 이러한 시공간의 설정은 가정소설로서의 의식을 보여주는데 하련당의 존재는 가정 내에 머물던 공간을 당대의 시대 인식을 개입시킴으로써 가정의 사적 영역에서 공공 영역으로 확장한다. 서사의 서두는 결혼한 지 2년의 세월이 흐른 지점에서 2년 전의 결혼을 후회하는 순자의 회고 시점에서 출발한다. “슬프다, 이 뒤를 따라서 연출(演出)하는 가정의 비극(悲劇)은 전혀 혼 사

름으로 인연(緣)야 동정의 눈물을 소스게 흐는도다”와 같이 이후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순자의 서사를 “가정의 비극”의 “연출”로 제시한다. 여기에서 <공상문학>을 “가정의 비극”의 “연출”로 제시하는 의미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공상문학>의 표제의 지시적 의미가 “가정의 비극”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대의 전기소설이나 ‘공상과학소설(SF)’과 같이 ‘공상’이라는 사실성과는 대립적인 허구적 상상력이 특정한 양태로 나타나는 데는 문학 장르의 역사적 맥락이 작용할 것이다.

<공상문학>이라는 표지가 부여하는 모호한 장르 이미지는 작중에 명시된 “가정의 비극”의 “연출”을 통해 가정소설의 장르라는 영토로 구체화한다. 가정주부를 주인공으로 하여 부부 갈등의 중심에는 “문학의 취미와 진의”라는 여성의 문학을 향한 열망이 놓여 있다는 점에서 갈등 요인의 차이는 있지만 <공상문학>에서는 “가정의 비극”으로서의 가정소설(domestic novel)<sup>32)</sup>의 요소를 내재한다. 그런데 가부장제의 가정을 존속시키는 봉건 도덕에 복무하는 가정소설과 달리 여주인공 순자는 “자유의 붓”의 기치를 들고 “외국 문장을 도적하는 저 여러 남작가(男作家) 무리들과 서로 분투하여” “문단(文壇)에 꽃도 피게” 하겠다는 ‘문학’을 향한 갈망이 추동하는 서사는 “가정의 단란함을 도모하기” 위한 가정소설 범주를 이탈한다. ‘재물’과도 ‘연애’와도 ‘권력’과도 ‘명예’와도 바꿀 수 없는 주부의 문학을 향한 일념은 가정소설에서 다루어지는 상류층 여성의 연애와 결혼을 통해 부와 권력을 획득하는 ‘흥미위주의 통속극’과는 다르다. 당대 조선에서는 부재했던 ‘여기자’<sup>33)</sup>의 진로를 희망하거나 소설을 금기하는 남편의 엄명에도 서적을 구입하는 열혈 독자를 포기하지 않는 주부를 주인공으로 하는 <공상문학>은 문학을 중심에 두면서 문사 하련당이라는 인물을 통해 가정을 넘어 ‘문학계’의 장으로 공간을 확장하여 식민지 조

“나의 Romanticism의 時代”로 명명했다. 서연호·홍창수 편, 396면. 다카야마 초규(高山樗牛)의 휘트먼론으로 「ワルト, ホイットマンを論ず」(『太陽』, 1898, 6) 등이 있다.

31) 유인순, 앞의 논문, 41면.

32) “가정의 단란함을 도모하기 적합한 읽을거리”로서의 가정소설 개념은 권정희, 『호토토기스(不如歸)의 변용-일본과 한국에서의 텍스트의 ‘번역』, (서울)소명출판, 2011, 18면.

33) 최초의 여기자의 등장은 1924년. 박석분·박은봉, 『인물여성사』, (서울)세날, 1994.

선의 신문 잡지계와 독자층이 구성하는 현실 변화의 역동성을 담아내어 가정소설의 범주를 이탈한다. 여기에 '공상' 개념이 요청되는 내적 필연성이 있다. 가정소설을 의식하면서도 장르 범주를 벗어나는 문학에 대한 상상이 <공상문학>의 장르표지를 요청하게 됨으로써 “가정의 비극”과 <공상문학>은 상호의 존재를 전제하는 상보적인 장르의식을 표출한다. <공상문학>이라는 일종의 장르표지와 같은 표제와 “가정의 비극”이 연관되는 장르기반을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가정소설 및 신파극과 결부되어 사용되어온 ‘가정비극’의 용어를 규명하는 토대에서 <공상문학>의 표제와 관련지어 장르인식을 고찰할 것이다.

신파극은 초기 ‘가정비극(domestic tragedy)’이 주종을 이루면서 ‘가정비극’은 신파극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되어왔다. 18세기 서구에서 발생했던 멜로드라마적인 소설과 연극 형식의 하나를 지칭하는 ‘가정비극’을 ‘가정비극신파극’과 같이 신파극 장르의 하위 범주로서 설정하거나<sup>34)</sup> ‘가정비극’을 가정소설을 원작으로 하여<sup>35)</sup> 가정소설을 각색화한 것이 가정비극이라는 개념 하에 가정비극류 신파극<sup>36)</sup>으로 논자에 따라 신파극과의 관계 양상의 차이를 보이면서도 ‘멜로드라마로 이해하는 시각’을 공유한다. 1910년대 신파극을 멜로드라마로 명명하려는 제안<sup>37)</sup>에 이르기까지 ‘멜로드라마’는 1910년대에서 1930년대에 이르는 신파극·대중극 등 용어의 혼란과 차이를 망라하는 포괄적 장르 규정으로서의 시민권을 획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상문학>은 “가정의 비극”을 표방하면서도 가정비극 신파극 범주를 이탈하는 특성을 발현한다.

34) 우수진, 「초기 가정비극 신파극의 여주인공과 센터멘탈리티의 근대성」, 『한국근대문학연구』 제13호, 한국근대문학학회, 2006.

35) 오화순, 「한·일 신파극 연구-가정비극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2002, 10면.

36) 윤민주, 「가정비극류 신파극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과잉(melodramatic excess)에 대한 연구」, 『어문론총』 제55호, 한국문학언어학회, 2011, 12.

37) 이승희, 「멜로드라마의 근대적 상상력-1910년대 신파극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제15집, 한국극예술학회, 2002, 101면.

김우진이 부친의 엄명에 따라 중매 결혼한 것은 1916년, 1913년 16세로 축소된 독서 목록에서 <공상문학>의 “가정의 비극” 장르 인식의 토대가 마련된다. 이러한 밑바탕에서 도쿠토미 로카의 소설 <호토토기스>(1900)의 변안소설 조중환의 <불여귀>(1912)가 <공상문학>에서 의식된 선행 텍스트로 부상된다. 오자키 고요(尾崎紅葉)의 <곤지키야사(金色夜叉)>와 함께 가정소설을 개척한 <호토토기스>가 일본 최대의 신파극 레퍼토리로 등극한 바와 같이 번역소설 <불여귀>의 출간과 동시에 신파극으로 수용되어 문화사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된 것은 주지하는 바이다. 따라서 <공상문학>의 <불여귀>에 대한 의식을 추출하여 ‘가정비극’ 신파극과 맺는 관련성과 장르 인식을 추론할 것이다.

연애 없이 중매결혼한 부부를 남매와 같은 육친애적 사랑으로 봉건적 도덕률과 절충하여 자연화하는 <호토토기스>와 번역소설 <불여귀>와는 달리 순자와 백하청이 “진정한 의정이 없는 혼인으로 일운 부부”라는 <공상문학>의 서술자는 봉건적 도덕률의 구속을 ‘속박’으로 인지하는 순자를 동정하고 격려한다. 이백매에 달하는 한 권의 소설을 완성하던 날 모녀가 나누는 의미심장한 대화는 <공상문학>의 당대 도덕에 관한 의식을 표출한다. ‘속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의지로 “죽유스승”으로 살아가겠다는 순자의 “누도 인제는 그 속박을 썰어버서놉습니다”라는 말을 ‘이별’을 뜻하는 것으로 여겨 근심하는 모친에게 “이별이라니요 누가 이별 말을 하얏소”하며 “어머니! 엇지하얏든지 누는 어머니의게서지는 버린 자식이 되기 실습니다”라고 흐느끼는 모녀간의 대화는 <호토토기스>와 번역소설 <불여귀> 및 신소설에 공통적인 ‘이혼’ 모티프의 모자간 언쟁<sup>38)</sup>의 변주라 하겠다. 동시에 “자유의 붓”을 구현하려는 자아 각성의 의지가 어머니의 벽에서 좌초하는 김우진 희곡의 특성을 확인하게 된다.

유복한 대가정의 단란함을 깨는 것은 1910년대 변안소설과 신소설에

38) <호토토기스>의 ‘이혼모티프’에 대해서는 권정희, 앞의 책, 제1장 제3절 참조.

반복되는 폐결핵의 병마가 아니라 '문학을 향한' 욕망이다. '아내의 의무와 도리를 다하려 애쓰면서도 "문학의 진의를 깨닫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는 '참 삶'의 자각으로 '허물이 업'는 순자는 '욕망을 가진 여주인공'이면서도 '도덕적 과오'에 충동되는 변안소설 각색 신파극의 인물 조형<sup>39)</sup>과는 차이가 있다. 여성의 욕망을 '위험한 공상'으로 경계하면서 남편의 "따스한 사랑"에도 "진정한 인정"이 없다고 여기는 순자는 부부애에 대한 회의와 가부장제의 허구성을 직시하는 것이다. 이혼 문제로 모자간의 충돌이 아니라 "남편과 소설 일관으로 충돌(衝突)"하여 "문학의 진가(眞價)"를 둘러싼 부부의 입장 차이가 부부애의 장벽이 되는 새로운 부부의 갈등을 보여준다. 조선의 가정의 실재성에 입각하면서도 '문학의 진의' 추구와 가정을 대립시키는 <공상문학>은 작가의 내적 욕구에 충실한 '공상'으로 '가정비극이 범람하는 1913년 이후' "권선징악과 개과천선이라는 신파극의 궁극적 지향"<sup>40)</sup>의 '퇴행'과는 상이한 서사의 지향성이 표출된다. "신파극이 현실에 '부재'하는 절대 이념 혹은 모랄을 과거에서 찾았으며 도덕적 정의가 준수된다는 위장된 낭만적 상상력"<sup>41)</sup>이 작동했다면 <공상문학>에서는 현실에 부재하는 부부애와 '참삶'의 구현을 "인간 스물의 실제에서 버서난 공상(空想)"에 구하여 조선 너머의 '공상'이 서사에 개입되는 방식에서 '가정비극 신파극'과는 상이한 지향성이 정초된다. <공상문학>의 "가정의 비극"이라는 장르 규정의 의미가 고구되어야 하는 연유가 여기에 있다. 신파극과 일정한 관련을 맺으면서도 일탈하는 작동 방식에서 장르표지의 표제가 함축하는 '공상'의 기제의 양가적인 <공상문학>의 고유한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 가정소설과는 다른 형태로 <공상문학>의 새롭게 조합된 '가정'과 '문학'은 1910년대 초 '가정'과 '문학의 진의'와의 결합이 생경하지 않았음을 웅변한다. 이러한 결합이 낯선 조합

39) 윤민주, 앞의 논문, 524면.

40) 이승희, 앞의 논문, 124면.

41) 위의 논문, 111면.

의 부조화로 인지되는 것은 '가정비극 신파극'이 정착<sup>42)</sup>된 이후의 역사적 산물이다. 1912년 <불여귀>의 상연 당시 관객들에게 '가정비극'의 장르 관습은 부재하여 1913년 10월 『매일신보』에 게재된 <불여귀>의 광고에서 "진々한 문학 취미"의 "필법"을 강구하는 "소설가"를 지망하는 독자층을 향해 "고부친자간사정을 천연묘사"했다는 판매 전략을 내세웠다.<sup>43)</sup> 이때 '가정비극'은 "진々한 문학 취미"와 병치될 수 있었다. 1913년 6월에서 8월까지 집필된 <공상문학>의 작가는 <불여귀>의 광고에서 공략하려던 "소설가"를 지망하는 교양 있는 독자다. 이는 독자와 번역자가 공유하는 1910년대 초 '가정비극'의 장르 인식을 단적으로 표출한다. '가정비극'이라는 새로운 기표에 기의를 충전(充填)해가는 시기 '가정'과 '문학의 진의'는 연관된 결합이었다.

1910년대 '가정비극' <규한>(1917), <운명>(1918), <황혼>(1919), <연과 죄>(1919), <이상적 결혼>(1919) 등 조혼의 인습적 권위에 반항하여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삼각관계라는 당시 가정비극류 희곡의 공통된 특성으로 자리 잡는 것은 1910년대 후반이다.<sup>44)</sup> 아내의 문학 열망을 억압하는 백하청은 가정비극류 신파극과 같은 선악 구도와 도덕적 화해에 따른 '개과천선'의 구제가 아니라 선악의 범주를 벗어나는 지점에서 조형된다. "손을 들어 연설하는 변스의 턱도로"라는 지시적 서술에서 혹은 하련당이 떠난 집의 텅 빈 마당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를 바라보는 순자의 시선을 통해 "그림즈도 쏘흔 이리저리 활동사진 움직기듯 흐는 초연한 정상이 눈물 뒹근 눈에 빚추엇도다"하며 문사의 존재를 공허한 심상으로 포착하는 시각적인 서술 전략은 "가정의 비극"의 "연출"을 보여준다. 일본 메이지 시대의 가정소설이 연극·영화·시·활동사진·노래 등 다양한 장르와 매체로 '복합

42) 김재석, 「근대극 전환기 한일 신파극의 근대성에 대한 비교연구학적 연구」, 『한국극예술연구』 제17집, 한국극예술학회, 2003, 41면.

43) 권정희, 앞의 책, 236면.

44) 윤일수, 「1910년대 가정비극 연구」, 『한민족문학』 제42집, 2003.6. 22면.

미디어<sup>45)</sup>의 수용방식이 조선에서도 확산되기 시작하여 1910년대 초 신파 연극 및 전통 연희가 주도하던 연예계에 영화가 상영되고 활동사진과 조선인 번사가 출현하는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sup>46)</sup> 그런데 <공상문학>에서는 문자 매체를 넘어 '사진' '번사' '활동사진' 등 시청각적 매체를 환기하지만 시각 매체의 경험은 부족하여 내용과 형식은 걸돌면서 제도화되지 않은 수용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신파극이 남녀 관객들로부터 보편적인 공감을 얻은 것은 정숙한 아내와 헌신적 어머니로 구성되는 신파극 여주인공들의 도덕성과 분열 없이 선(善) 그 자체로 통합된 감정 과잉의 멜로드라마적인 센터멘털리티에 의한 것이다.<sup>47)</sup> 이에 대해 <공상문학>은 여성의 미덕이 아니라 “주유스승”으로 ‘참 삶’을 자각하는 선악으로 이분되지 않는 현실세계를 추구한다. 자신의 ‘문학의 취미’를 추구하는 주부의 “가정의 비극”에 공감하는 실재하는 독자층 부재가 <공상문학>에 신파극과 같은 동정을 보낼 수 없었던 결정적인 요인일 것이다.

<공상문학>의 집필 시기 연재된 이상협의 <눈물>이 『매일신보』(1913.7.16-1914.1.12)에 연재되는 도중 상연되어 ‘독자와 관객의 눈물로 현실화’<sup>48)</sup>했던 것은 1913년 10월의 일이다. <공상문학>은 ‘가정비극’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킨 <장한몽>(1913.5.13-10.1)의 연재시기에 집필되었다. <공상문학>보다 한 달 앞서 연재된 <장한몽>은 <공상문학>의 집필 완료에서 두 달이 지난 시점에서 종료되었다. ‘가정비극’의 장르관습이 뿌리 내리는 초기 ‘문학의 진의’를 추구하는 순문학적 주제는 “가정의 비극”과 모순되지 않았다. 이러한 근대 초기의 지형에서 <불여귀>의 광고 전략

45)金子明雄, 권정희 역, 『‘가정소설’을 둘러싼 미디어 복합—1900년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제64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7.

46) 유선영, 『초기 영화의 문화적 수용과 관객성-근대적 시각문화의 변조와 재배치』, 윤해동·천정환·허수·황병주·이용기·윤대석 엮음, 『근대를 다시 읽는다』2, (서울:역사비평사, 2006, 140면.

47) 우수진, 앞의 논문, 9면.

48) 최태원, 『1910년대 신소설의 독자·대중·미디어』, 사예구사 도시카즈 [三枝壽勝]외 편, 『한국근대문학과 일본』, (서울:소명출판, 2003, 36면.

과 <공상문학>은 동일한 방향이 제시될 수 있었다. 이는 ‘신춘문에’ 현상모집의 효시가 되는 1914년 『매일신보』의 ‘단편소설 『新年的 家庭小景』<sup>49)</sup>이라는 공고에서 제시된 ‘가정’과 ‘문학’의 조합에서 ‘단편소설’ 형성의 토대를 구하려는 방향과 일맥상통한다. 200자 원고지로 300매에 가까운 중편소설<sup>50)</sup>분량의 <공상문학>이 발표 지면을 얻기 어려웠을 것은 짐작할 수 있다. ‘정로생(正路生)’이라는 필명으로 집필된 <공상문학>의 “가정의 비극”은 ‘가정’과 ‘문학’이 결합된 ‘단편소설’에 가까운 형태로 장편소설 중심 가정소설의 서사를 일탈한 과격이 이루어졌다. 1920년대 “家庭에서 일어나는 事件을 주로 한 通俗小說이니 波瀾曲折이 많은 家庭事實을 쓴 것”<sup>51)</sup>으로 풀이되었던 ‘가정소설’의 정의는 실재성의 맥락에서 전대와 다른 ‘신어(新語)’로서의 역사적 의미를 표출한다. ‘가정’이 통속성의 전유물이 아니라 실재성에서 ‘단편소설’의 장르 기반으로 ‘가정’과 ‘문학’의 다양한 결합 방식을 생성하는 맥락에 <공상문학>이 놓여 있는 것이다. 16세 김우진의 당대를 넘는 비약적 인식은 이러한 역사의 발전 방향과 부합되는 것으로 <공상문학>이 “가정의 비극”과 병치되었던 구성은 문학의 사실/허구와 관련지어 ‘가정’과 ‘문학’을 조합한 장르 인식임을 보여준다. 1912년의 <불여귀>가 “진々한 문학 취미”와 “부부간의 사랑”과 “사회의 진상”으로 제시<sup>52)</sup>된 것은 ‘가정비극’이 ‘흥미 위주의 통속극’과는 다른 형태로 ‘사회의 진상’과 “문학 취미”와 관련지어 <공상문학>의 표제 하에 “가정의 비극”을 “연출”하는 것과 유사하다. 즉 <공상문학>의 ‘가정의 비극’의 기본 방향은 <불여귀>를 모범으로 함으로써 <공상문학>과 <불여귀> 투신 모티프의 서술 방식의 유사성을 폭도하게 되는 것이다.

49) 『매일신보』, 1914.12.18. 김영민, 『문학제도 및 민족어의 형성과 한국근대문학(1890-1945)-제도, 언어, 양식의 지형도 연구』, (서울:소명출판, 2012, 129면.

50) 유인순, 앞의 논문, 31면.

51) 청년조선사 편, 『新語事典』, 1934, 한림과학원편, 『한국근대신어사전』, (서울:선인, 2010, 294면.

52) 권정희, 앞의 책, 227-228면.

엇지해야 저는 이러흔 집에 들어오게 되얏든고. 엇지해야 저러흔 남편의 안희가 되얏든고. 엇지해야 이러흔 큰 가정의 주부가 되얏스며 엇지해야 남의 직취 안희로라도 되지 아니호고 이와 갓흔 줌흔 책임을 질 몸이 되게 되얏든지<sup>53)</sup>

엇지하면, 이세상은, 이와갓치 무정한고, 이몸은낭군을 그리워, 목숨이 조석에달니였고, 낭군, 이몸을, 쏘흔 그와 갓치 싱각호거늘, 엇진연고로, 이부처두스람의 인연을 쓴엇난고, 낭군의 지극히 사랑하난 마음이, 이편지가온터 낫타났도다<sup>54)</sup>

<공상문학>과 <불여귀>의 울분과 회한을 토로하는 방식의 유사성이 1910년대라는 당대 현실에서 비롯한 것만은 아니다. 정념이 분출되는 방식에서 의식되는 장르 기반에 가정소설 <불여귀>가 선행하는 텍스트로 놓여져 <공상문학>의 유형적 표현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번역 <불여귀>에서 발견되는 원작 <호토토기스>의 오역이 <공상문학>에도 반복되는 것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일본어의 '외아들'이라는 의미로 쓰인 '독자(獨子)'를 '독신'으로 번역한 <불여귀>의 용법과 같이 <공상문학>에서는 "이 백씨가의 중한 책임은 독신인 이 너의 역기에 올리게 되얏는디"로 외아들을 뜻하는 의미로 '독신'을 구사하여 <호토토기스>의 번안소설 <두견성>의 "독자된 몸"과 대비된다. <공상문학>에도 답습되는 오역의 표현<sup>55)</sup>은 선우일의 <두견성>의 언어의식과 변별되는 것으로 "가정의 비극"의 장르적 기반에 대한 의식성을 설명해 준다. 1912년 발간 즈음 <불여귀>의 『매일신보』의 광고에서도 '가정비극'에 주안점을 둔 것<sup>56)</sup>은 이들 장르 기반의 혈연성을 방증한다. 이로써 조중환의 번역 <불

여귀>와 김우진의 <공상문학>이 당대 장르 기반에서 공존하는 인식 지평과 인접 거리를 확인하였다. <불여귀>와의 관계에서 도출되는 "가정의 비극"의 장르 기반은 가정소설과 가정비극 신파극의 장르 틀을 넘어 '가정'과 '문학'을 순문학적인 양상으로 결합하여 1920년대 부각된 소설가를 추구하는 문학 청년이 가정과 사회의 불화를 야기하며 내적 세계를 발견해가는 근대소설 자아의 각성의 주제와 맥을 같이한다. 이러한 당대의 제약을 넘는 도약은 <공상문학>의 장르표지가 함축하는 '공상'과 "가정의 비극"의 장르 기반이 상호 작용하는 장르인식에서 가능한 것이다.

"가정의 비극"이라는 의장에서도 <공상문학>에서는 '진정한 인정'이 없는 결혼을 회피하고 고유한 자아를 지닌 인격적 결합의 부부에 추구하고 '참삶'에 대한 갈망 등을 표명한다는 점에서 가정소설 <불여귀>보다 진일보한 것이다. <공상문학>이 동시대 가정소설과 구별되는 것은 '독신'이라는 라이프스타일이 제기되는 점에서도 명료하다. 당시의 제도에서 합리적 해결을 구할 수 없었던 모순된 상황 인식이 부여하는 대안적 삶의 '공상'인 '독신'을 고수하는 등장인물들은 여타의 가정소설과는 다르다. <공상문학>에서는 대가정의 주부와 양립할 수 없었던 문학의 꿈이 남편과의 불화를 야기하면서 '처녀 시절 독신'에의 꿈을 그리워하거나 하련당의 '독신 생활'에 대한 선망과 호기심 어린 시선을 통해 또는 순자의 병사 이후에도 "다시는 저 직취 안희를 엇지 안기로 결심을 정한 바"와 같이 아내와의 사별 후에도 '독신'을 고수한 남편 백하청은 하디의 소설에서 사별한 지 이년 후 재혼한 것<sup>57)</sup>과 대비된다. 아내의 죽음으로 종결하는 <호토토기스>에서 촉발되어 일부일처의 부부이라는 주제가 연애, 재혼 등을 중심으로 하는 통속소설로 파급되었던<sup>58)</sup>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번안소설 <두견성>에서도 재혼을 암시하는 방향의 변형이 이루어지거나

53) <공상문학>의 텍스트 인용은 서연호·홍창수 편, 앞의 책, 210-211면.

54) 조중환, <불여귀> 하편, (서울:경성사서점, 1912, 76면.

55) <불여귀>와 마찬가지로 <공상문학>에서는 '친가'와 함께 '실가'라는 일본식 한자어 표현을 병용했다.

56) 권정희, 앞의 책, 233면.

57) 손필영, 앞의 논문, 19면.

58) 권정희, 앞의 책, 39면.

신소설 <류화우>의 '이치를 암시'하는 방향과 대조적으로 <공상문학>에서는 '독신'의 생활 속에서 장르적 상상력에 구속되지 않는다. 일부일처제에 입각한 서구의 부부애가 일부다처제의 조선 현실에서 '재혼' 모티프로 굴절된 가정소설과 변별되는 '독신'의 선택지에서 갈등의 양상은 장르적 유형성을 탈각한 서사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다. 연이은 사별로 인한 일부다처라는 작가 가족사의 콤플렉스가 작용하는 '독신'은 조선의 "인간 사회의 현실에 버서나게 흐느" '공상'의 개입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다. <공상문학>은 "인간 사물의 실제에서 벗어난 공상(空想)"의 기제와 "가정의 비극"의 상호 작용 속에서 가정소설의 틀을 벗어나 '단편소설'로 이행하는 연속적인 토대가 되었다. 여기에 서양소설의 번역소설 및 변안소설과 구별되는 창작소설로서의 장르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소설가(小說家)를 디적으로 칭각하는" 남편, 문학 지망생 아내라는 대립 구도는 가정소설의 장르 유형을 탈각하여 김우진 희곡에 나타나는 아버지와 아들의 대립과 반목의 반복이며 성적 주체와 가정 내 위치의 차이로 변주된 김우진 문학을 관통하는 내면의 목소리의 여성 버전이다. 은행 지배인 남편 백하정은 근대식 교육을 받은 현실적 가치를 존중하는 부유층의 자제이며 강직한 성격의 소유자로서 광주농공은행의 창립에 참여하고 목포 금융조합장을 역임한 김우진의 부친과 닮아있다.<sup>60)</sup> 또한 순자에게서 김우진의 어머니를 상상하거나<sup>61)</sup> 순자의 동생 철식에서 철진을 순자의 죽음 이후 남겨진 '후일담'<sup>62)</sup>의 아기 태근에게 김우진 자신을 중첩시키는 자서전적 일면을 내포하는 김우진 문학에서 <공상문학>이 설명된다. 자신의 '분신'으로서의 어머니는 희곡 <난파(難破)>(1926.5)<sup>63)</sup>에서도

59) 권보드래, 「열정의 공공성과 개인성-신소설에 나타난 '일부일처'와 '이치'의 문제」, 『한국학보』 제99집, 일지사, 2000, 125면.

60) 윤진현, 앞의 책, 72면.

61) 손필영, 앞의 논문, 20면. 윤진현, 앞의 책, 48면.

62) 윤진현, 앞의 책, 60면.

63) 주현식, 「폭발의 드라마, 폭발하는 무대」, 『한국극예술연구』 제29집, 한국극예술학회,

반복되는 것으로 김우진 문학의 원형으로서 <공상문학>의 특질을 내포한다. 이러한 현실성과 동시에 당대의 조건에 제약되지 않는 비현실성의 요소도 다분하다는 점에서 장르표지와 같은 표제를 주목하게 한다. 이에 기존 연구에서 <공상문학>과 비교 연구된 바 있는 하디의 <환상을 쫓는 여인>을 근거로 하여 하디 소설 표제의 '환상(Imaginative)'이 '공상'으로 해석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다.<sup>64)</sup> 그런데 이러한 전제에서 작품 속 '문학'이라는 환상을 쫓는 여인의 일생을 공통분모로 하면서도 당대의 조선을 배경으로 하는 현실성과 동시에 조선에 부재한 비현실성이 추구되는 <공상문학>은 사실주의 계열 하디 소설의 조선적 변안이라는 틀에서 해소되지 않는다. <공상문학>의 현실과 비현실세계가 착종하는 서사적 현실은 '공상'이 관여하는 방식의 차이를 보여준다. 즉 조선의 근대소설 성립의 맥락에서 장르적 기반에 대한 의식과 관련한 차이이다. 따라서 '공상'과 "가정의 비극"의 관계를 탐색하는 장르 인식 속에서 번역어로서의 '공상' 개념에 회수될 수 없는 '공상'의 작동방식 분석의 과제가 대두된다.

'공상(空想, fancy)'은 '가정의 비극'을 <호토토기스>의 번역 <불어귀>와 같은 가정소설의 장르를 넘는 기반을 창출시켰다. 전기소설(傳奇小說)을 "일반적으로 공상적인 소설"<sup>65)</sup>로 규정했던 황당무계하고 괴이한 소설에서 '가정'의 실재성에 기초하여 비실재적 상상을 구동시키는 형태로 '공상'은 장르와 결부되어 근대 소설에 대한 상상을 구성하게 했다. 따라서 <공상문학>의 '공상'은 서사의 변형 방식에 관여하는 상위의 장르적 기반과 관련한 장르 표지와 같은 의미를 함축한다. 창작 행위에 포함되는 정신의 작용을 설명해주는 '공상' 개념은 <환상을 쫓는 여인>의 'imagination'이 '공상'으로 번역되었다는 가정에서도 유효하다. 17,8세기 공상과 상상을 거의 같은 것으로 이해하던 경험주의 시대의 의미의 자장에

2009, 13면.

64) 윤진현, 앞의 책, 58면.

65) 최록동 편, 『現代新語釋義』, 문창사, 1922, 한림과학원편, 앞의 책, 31면.

서도 배치되지 않는다. 경험론자 흄에 따르면 상상력이 경험을 벗어나 작용하는 경우가 공상(fancy)이다. 상상력은 시공간적인 제약으로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관념을 산출하지 못하여 상상력이 경험 질서에 부합되게 관념을 결합할 때 “정신은 그 관념들을 실재들(realities)이라는 칭호를 부여하는 새로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하는데 반해 상상력이 경험질서를 벗어나 비실재적인 관념들을 형성하는 경우가 공상이다.<sup>66)</sup>

또한 경험론자 흄의 공상 개념을 바탕으로 드라이든은 시인의 상상력을 ‘창안(創案)’, 혹은 생각의 발견을 주제에 적절하게 제시할 때 이끌어낸 틀에서 떠난 생각을 변형시키는 ‘공상’으로 설명하여 창조 행위에 이들을 포괄한다.<sup>67)</sup> 드라이든의 ‘공상’ 개념에 입각한다면 <공상문학>의 ‘공상’은 <환상을 쫓는 여인>에서 ‘창안’된 발상이 ‘공상’을 통해 변형되는 방식에 대한 의식성의 표출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김우진이 드라이든의 ‘공상’ 개념을 인지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원천에서 받은 영감의 착상을 서사로 구체화하는 구성 방식에서 신, 요괴 등의 전기소설의 공상과는 다른 가정을 중심으로 하는 ‘공상’의 작동 방식에 대한 자각이 표제로 표출되었다는 것이다. 즉 서양소설의 착상에서 자신의 창작으로의 변화 과정에서 ‘공상’ 개념이 의식되면서 조선의 가정을 무대로 “자유 스승”을 구현하려는 여주인공을 조형하는 당대를 넘는 비실재적인 상상의 작동의 의미를 표제에 함축했다. 이러한 창작의 과정에서 토마스 하디의 초기 단편소설 가운데 여주인공의 이름이 ‘팬시(fancy)’인 <푸른 숲 나무 그늘(Under the Greenwood Tree)>(1872)<sup>68)</sup>은 <공상문학>의 표제의 착상을 촉

66) 강동수, 「흄의 철학에서 상상력의 성격과 의미」, 『철학논총』 제70집4권, 새한철학회, 2012, 157면.

67) R.L.Brett, 심명호 역, 『공상과 상상력』, (서울:)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17면.

68) <푸른 숲 나무 그늘(Under the Greenwood Tree)>은 남녀의 결혼에 이르는 과정을 그렸는데 심각한 갈등이나 극적인 전개 없이 옛것과 새것의 갈등, 사회계층이 다른 남녀 간의 사랑, 결혼의 문제들을 그린 스케치와 같은 작품이다. 하디의 초기 소설인 이 작품에서 ‘결혼으로 족쇄 채워진 사랑은 풀 수 없는 속박에 갇혀 죽어버리게 마련이라는’ 하디 이후의 작품들에서 보이는 불행한 남녀의 단조를 엿볼 수 있다고 한다. (김태인, 「토마스 하디의 초기소설연구」, 『인제논총INJE JOURNAL』9권1호, 인제대학교, 1993.6) 이는 작

발한 일 요인일 가능성을 잠재한다. 이 작품은 <공상문학>과 현저하게 차이가 있어 원천으로 동일화할 수는 없다. 번역 및 변안소설과 같은 단일한 원천과의 동일성에 회수되는 관계 설정은 퇴각하고 영감이 주는 착상과 ‘창안’을 변형시켜 나가는 동력을 ‘공상’의 기제를 통하여 구성하는 <공상문학>은 창작소설로 나아가는 도정에서 다기한 복수의 원천과 맺는 다양한 관계의 방식을 노정하는 의미를 함축한다고 하겠다.

원천이 파생시킨 번역소설이나 변안소설과도 다른 형태로 조선의 “가정의 비극”을 창작하려는 주체의 인식 속에서 의식된 ‘공상’의 작동 방식은 ‘가정’의 실재성에 입각하면서도 “인간 스물의 실체에서 버서난 공상(空想)”으로 전기소설과도 서양소설과도 거리를 둔 서사를 전개시켰다. 여기에 전술한 바와 같이 번역소설 <불여귀>를 독서했다는 전제에서 번역소설과의 변별 의식을 추론할 수 있다. 당대의 번역소설과 신소설의 대타자적 구성에서 ‘공상문학’이 근대소설(Novel)에 대한 지향을 정초하는 장르 의식의 표출인 것이다. <공상문학>의 “외국 문장을 도적하는 저 여러 남작가(男作家)무리들과 서로 분투하야 보리라”는 문학을 향한 여성의 결의를 통해 당대 ‘독서계’의 인기 있는 신소설 작가를 비판하는 현실의식은 작가의 이중적인 모순이 아니라 창작 행위에 대한 자각에서 스스로는 “외국 문장을 도적하는” 것과는 변별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번역소설과 신소설의 모방과 표절을 구별하여 자신의 창작 행위에 대한 자각을 장르 표지로 표출하는 것이다. 이로써 1913년 ‘가정의 비극’에 대한 상상을 신소설·번역소설·변안소설의 관계에서 구성한 <공상문학>이 동시대의 서사와 맺는 관계와 장르표지가 요청되었던 맥락이 부각되었다.

김우진의 일기에 언급된 다카야마 초규(高山樗牛)의 국가와 공상<sup>69)</sup> 등의 단상에서는 ‘국가라는 실재’에 ‘시인의 공상’이 요청된다는 주장

가의 세계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김우진에게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잠재하는데 결혼을 ‘속박’으로 인식하는 두 작가의 공통점은 서사의 유사성과는 다른 측면에서 독서를 매개로 하는 작가 인식의 형성 프로세스에서 논구되어야 할 것이다.

69) 高山樗牛, 『國家と空想』, 『樗牛全集』第2卷, 일본:博文館印刷所, 687-690면.

피 '공상'을 실재와 대비되는 상상력이라는 의미에서 구사했다. 즉 18, 19 세기의 서양 철학들이 일본에 수용되면서 '공상' 개념이 실재성에 의해 재규정되는 당대 인식의 표출인 것이다. 그러나 1913년 김우진의 <공상 문학> 이 다카야마 초규의 「국가와 공상」에 발단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 다카야마 초규의 「국가와 공상」 등이 일본에서 <공상문학>이라는 표제의 작품을 생성시키지 않았던 것과 같이 '공상' 개념을 도구로 한 창작 주체의 창조 과정의 산물이다. 이러한 관념은 <공상문학>의 현실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시공간적 제약을 넘는 상상력이 '공상' 개념을 요청하는 창작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게 한다. “가정의 비극” <공상문학>이 가정소설의 틀을 벗어나 '독신'의 라이프스타일로 서사의 지평을 확장하면서 당대의 조선에서는 현실감이 희박한 여주인공을 '공상'의 기제로 조선의 경험 세계를 넘는 상상력을 작동시키는 방식이 표제로 나타났다. <공상문학>의 '공상'은 협의의 의미에서는 비실재적 상상력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광의의 의미에서는 상상력(imagination)에 포괄되는 것이 '공상(fancy)'의 내포와 외연이라 하겠다. '공상'의 철학적 이론에 자각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공상문학>에서는 실재와 비실재, 경험과 상상력의 서술 방식에 대한 일정한 체계에서 구성 원리가 관철된다는 점에서 근대소설 성립 프로세스에서 갖는 의미는 작지 않다.

“가정의 비극”이라는 장르와 결부되어 '공상'은 전대의 전기소설과는 다른 형태로 작동했다. <공상문학>의 '공상'은 '로맨틱(Romantic)'이 '낭만주의적'으로 “공상적이요 전기적인 것을 형용하”고 '로맨스(Romance)'가 “본래는 공상, 모험, 연애의 이야기가 많은 소설을 말한 것이었었는데 지금은 주로 연애소설을 「로맨스」라 한다”<sup>70)</sup>는 '공상'을 둘러싼 장르와 의미 변용의 흐름에서 서구 낭만주의가 부상시킨 이상적 낭만성의 색채가 더해진 것이다. 즉 전기소설을 뜻하는 '공상적'인 의미에서 '로맨틱'을 뜻하

는 '공상적'의 의미로 변용되는 추이에서 이해되는 것이다. 이는 전술한 휘트먼의 '자유'를 주창하는 자아의 시대 '로맨틱'이 부가되는 맥락과도 부합한다. <공상문학>의 '공상'은 낭만성이 더해진 비실재적 상상력이라는 토대에서 '문학'에 대한 상상을 구성하는 장르인식과 결부되었다. 말하자면 전기소설의 '공상적'이 괴이함, 기이한 황당무계한 서사리는 장르에서 비실재적 상상력의 방향이 규정된다면 로맨틱의 술어로서의 '공상적'은 현실 탈피의 이상적 낭만성으로 비실재적 상상력의 방향이 다르다. '공상'은 비실재적 상상력을 장르와 결부하여 인식하는 내적 연관 속에서 '문학'에 대한 상상을 구성하는 장르인식의 토대가 되었다. 장르기반의 허약함이 전기소설과 구별된 <공상문학>이라는 장르표지와 같은 표제를 만들어냈다고 하겠다. '가정의 비극'은 '가정'의 함의를 실재성과 결부하고 '비극'을 죽음의 “위험한 공상”으로 낭만적 상상의 결합과 결부했다. 즉 '가정'의 실재성에 기초하여 조선 너머를 상상하는 낭만적 '공상'으로 운명의 '비극'을 주조하는 <공상문학>의 근대소설에 대한 상상이 구성하는 '공상'은 실재세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장르적 규정에 대한 의식성을 환기한다. '문학'에 대한 상상을 구성하는 '공상'의 기제는 동시대 문화 관습의 이탈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근대소설의 성립을 촉구했다. 따라서 <공상문학>의 '공상'을 상상력과 동일한 의미로 환원한다면 전기소설과 변별되는 이상적 낭만적 상상력의 적극적 의미 창출 기제로 '공상'이 발견되는 텍스트 성립의 역사성이 간과된다.

#### 4. “문수 자살”모티프 - ‘청년의 고뇌’라는 스캔들

<공상문학>의 전지적 서술자는 하련당에 대해서는 함구한 채 등장인물을 통해 외부만을 서술한다. 이러한 제한적인 서술 방식은 하련당의

70) 청년조선사 편, 「신어사전」, 1934, 한림과학원편, 앞의 책, 260면.

미공의 자살이 순자와의 관계가 원인 제공자라는 의혹을 증폭시키면서 한층 연애 서사로의 수용이 발생했다. 이에 그간 간과된 하련당의 인물 조형과 “문스 자살” 모티프의 서사적 의미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순자는 동생을 통해 하련당의 소설 <맑은 웃음>을 문사에게 빌려보게 된다. 소설에 심취하여 사모하는 마음 깊어지던 차에 순자는 잡지에서 하련당의 글을 보게 된다. 순자가 ‘묵독’하는 잡지의 글은 다음과 같이 전제된다.

○

가석다! 저의 궤세인 결심이 이 혼 마디에 추풍락엽이 되었스니 엇지 썩 일개의 장부라 자랑하랴. (중략) 저자(著者) | 호울로 칙상에 의지하야 심사묵고흠에 사옹(沙翁)의 비극 『로메오』와 『쥬리엣』가 눈 압헤 현연히 늦하느는도다. (중략) 이에 제 저의 결심이 사라져 업슴에 일르려는 드문 저의 운명은 흐날의게 달닌바 되었스니 슬흐다 흐날에는 두 희가 업고 나라에는 두 님금이 업다 일으을지느 그러느 이후로부터 다시 너의 상서로운 운명을 회복케 홀 도리는 당당하게 늙아 잇도다. (후략)<sup>71)</sup>

○

순자가 펼쳐든 잡지 기사 「저의 결심」은 앞뒤에 ‘○’의 표시로 본문과는 구별하여 순자의 눈에 비친 잡지 기사를 재현했다. 이러한 서술 형식에서 소설 속 편지, 신문 기사 등 매체의 변화를 드러내는 일본어소설을 매개로 한 번안소설 및 신소설에 대한 의식을 엿볼 수 있다. <호토토기스>의 왕복 서한의 서술 방식이나 여주인공이 남긴 유서를 ‘낭독’하는 방식<sup>72)</sup>과 유사한 형태로 순자의 시선을 통해 잡지 기사를 재현하려는 <공상문학>은 동일한 장(章)에서 급격한 장면 전환을 ‘\*’의 기호로 나타냈던

71) 김우진, <공상문학>, 206-207면.

72) <호토토기스>에서는 인용부를 사용하지 않고 본문과 연속적인 형태로 유서를 펼쳐든 순간을 정지시키면서 유서를 읽는 이의 눈에 비친 편지를 재현하는 서술 방식을 취한다. 권정희, 앞의 책, 208-209면.

<호토토기스>와 <불여귀>의 형식을 따른다. 하련당의 내면을 드러내는 이 기사는 “용감한 결심이 적음으로” 거행된 로미오의 비극에 애석함을 표하면서 “흐날에는 두 희가 업고 나라에는 두 님금이 업다 일으을지느 그러느 이후로부터 다시 너의 상서로운 운명을 회복케 홀 도리는 당당하게 늙아 잇도다.”라는 비유에 단호한 의지가 역력하다. 이는 로미오와 줄리엣이 환기하는 비극적 연애만이 아니라 식민지화된 조선의 불운한 시대를 암시하고 이를 “회복케 홀 도리”를 다하려는 뜻을 암시한다. 발매 금지 처분된 저작과 “문스 자살” 모티프는 기사의 ‘결심’을 시대의 울분을 토로하는 조선의 현실성의 맥락으로 견인한다. 이러한 출사표와 같은 하련당의 ‘궤세인 결심’은 순자의 ‘궤세인 결심’으로 전이되는데 급작스런 문사의 이사로 실의에 빠진 순자는 신문 기사의 비보에 접하게 된다.

●문스 자살

文士의 自殺

…속니산중에서 자살한 문스…

…그 원인은 아즉도 미상하여…

당시 문학계(文學界)에 성명을 떨치는 덕문호 하련당(河連堂) 씨는 지나간 스므흐로날 충청도 □□군 속니산(俗離山) 중에서 룡혈포로 즈살을 흐얏는디 이 급보를 들은 동군 경찰서 관헌들은 즉시 곡촌 경의(警醫)와 삼촌 검수(檢事)와 동반하야 출장한 후 검사한 결과 이는 타살(他殺)이 아님은 확실히얏고 (중략) 그 자살한 원인은 아즉도 탐치치 못할 썬 아니라 그 유족(遺族) 또는 친속도 썬 업슴을 알앗슴으로 즉시 공동 미장으로 붓치든 전하느 바 본 괴즈가 이 괴스를 초흠에 당하야 우리 문학계에 동정의 눈물을 금치 못하얏노라<sup>73)</sup>

73) 김우진, <공상문학>, 243면.

신문을 든 채 기절한 순자는 병석에 눕게 되고 출산을 하지만 비운은 가지지 않는다. 유서 없이 당대 구하기 어려운 '육혈포'라는 신종 무기로 자살한 현장에는 경찰서 관헌과 경의, 검사들이 동반 출장하는 과학적, 근대적 의학적 수사 체계에서 '속리산'이라는 깊은 산중의 현실성을 탈각하여 탐정소설의 범죄 현장과 같은 기이한 비현실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여기에서 1903년 일본에서 일고의 수재 후지무라 미사오(藤村操)가 실연 끝에 '불가해'한 삶의 실존적인 문제로 번민하며 동경 근교 닛교(日光)의 폭포에서 목숨을 끊어 세상을 놀라게 한 사건<sup>74)</sup>을 참조한다면 "문스 자살" 모티프의 맥락은 뚜렷하게 부각된다. 전도유망한 청년의 투신자살은 질병·실연·가난·실직 등 인간 생존을 억압하는 가시적인 원인이 아니라 삶의 불확실성과 존재에 대한 회의와 번뇌라는 추상화된 실존의 문제로 특히 문학청년들의 공명과 사회적 반향으로 '청년의 고뇌'의 시대를 상징하게 되었다. 니체식 염세적 회의주의적 사상과 철학에 감화를 받은 특히 문학청년들의 자살이 잇달아 이러한 세태를 '비로소 회의적 정신에 눈뜨더니' "이상과 현실과의 관련을 분별하지 않는 죄"라며 개탄했던 다카야마 초규의 청년문인의 염세관<sup>75)</sup>이 대표하는 '번뇌의 시대'의 상징이라 하겠다.

<공상문학>의 '문인의 자살' 모티프가 일본 메이지 시대 후지무라 미사오의 자살 모방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원인 불명의 자살·문학계의 공감·미디어에 의한 과급이라는 유사한 구성 방식은 '청년의 고뇌'라는 낭만주의 시대 분위기를 산출한다. 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고뇌는 발매금지나 검열 등 식민지 조선의 금기와 억압의 부하가 가해지면서 후지무라 미사오의 '불가해한' 죽음과는 다른 내용들이 채워진다. 즉 "문스 자살" 모티프는 하련당의 「저의 결심」의 연속선상에서 "다시 너의 상서로운 운명을 회복케 할 도리는 당당하게 남아 있도다."라는 희망에 찬 맹세가 절망으로 바뀌는 과정이 서사의 공백으로 남겨진 채 "흐늘에는 두 히가 업

고 나라에는 두 님금이 업다"던 하련당의 죽음은 희망이 사라진 현실을 살아내려는 작가의 상징적인 죽음을 함축한다. 여기에 식민지 조선의 '청년의 고뇌'로 육화된 고유한 낭만성이 착종된다. 따라서 "문스 자살" 모티프를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기인한다는 전제에서 다눈치오의 <죽음의 승리>의 주인공 조르지오와 하련당을 관련지어 "두사람 모두 유부녀에 대한 사랑으로 자학"하거나 "하련당은 순자와의 접근 가능성마저도 스스로 포기하고 때<sup>76)</sup>나는 해석은 서사의 공백을 메우는 상상력이 연애 서사의 맥락에서 작동함을 보여준다. 미디어를 통해 드러나는 하련당의 사상과 좌절 등을 "문스 자살"의 의혹과 맞물려 스키타화하는 수용의 욕망이 김우진의 '정사'라는 비극의 징후로서의 텍스트 읽기를 한층 조장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1910년대 연애표상과 '문학의 진의'라는 문제를 동시적으로 제기하는 지점을 연애의 서사로 귀결시키는 것이다. 아울러 "인간 스물의 실제에서 벗어난 공상(空想)"에 의하여 "인간 스회의 현실에 버서느게 흐는" 문사 하련당 소설의 특질은 <공상문학>의 '공상'의 기제가 작동하는 구성 방식을 여실히 보여준다. 즉 "문스 자살"모티프가 일본 사회의 '청년의 고뇌'와 공유되는 점점 속에서도 포획되지 않는 비동일성은 '공상'의 작동 방식에 연유한다는 것이다. 하련당의 고뇌는 "두 히"로 상징되는 조선 현실에서 발로한 존재적 차이와 근대 과학적 수사 등이 동원되는 조선을 탈각한 상상의 구성에 '공상'이 개입됨으로써 '속리산'을 배경으로 하는 실재성에 현실을 탈각시킴으로써 현대의 추리소설을 방불케 하는 기이함으로 일본의 '청년의 고뇌' 시대와도 차이가 있다. '가정'과 '자유스승'과 '문학의 진의'라는 이상적 관념을 더한 '공상'의 작용 방식은 비현실적인 수사와 당대에 구입하기 어려운 신종의 무기 권총 자살로 '속리산'의 현실 공간을 탈각하여 실재성과 비실재성의 상상력을 결합시킴으로써 번안소설과 구별되었다.

74) 生方敏郎, 『明治大正見聞史』, (일본)春秋社, 1926, 100면.

75) 高山樗牛, 『青年文人の厭世觀』, 高山樗牛, 齋藤信策編, 앞의 책, 275-276면.

76) 유인순, 앞의 논문, 42면.

##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김우진의 소설 <공상문학>을 1910년대 식민지 초기의 문화적 맥락에서 작가의 독서 이력과 인식 변모에 초점을 두어 성립 과정을 분석했다. 일본어 번역을 매개로 한 서양소설의 독서라는 문제 설정으로 16세 집필 시기의 김우진 작가의 생애 기초하여 초기의 시작(詩作)을 ‘내 로만티시즘’ 시대로 명명했던 인식의 변모와 이에 상응하는 독서의 관계를 제시하는 성과를 제출했다. 이를 통해 서양소설과 당대 조선의 신문 잡지 소설을 애독하는 여주인공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인물 조형과 소설가가 등장하는 ‘문학계’를 담아낸 <공상문학>이 출현하게 되는 조건을 고찰했다. 폭넓은 독서를 통해 획득한 근대적 자아의 각성이 1910년대 조선의 현실을 직시하고 성찰하게 함으로써 ‘가정’의 실재성과 동시에 현실 너머를 상상하는 낭만성을 ‘공상’ 개념이 의식된 장르 기반에서 정초하는 과정이 가시화되었다. 이로써 ‘가정’과 ‘문학’의 새로운 결합이 ‘공상’을 전대의 전기소설과는 다른 방식으로 ‘문학’에 대한 상상을 작동 시킴으로써 당대의 신소설·번역소설·가정소설·가정비극·신과극 등의 관계에서 “가정의 비극”의 장르적 기반이 모색되는 성립 과정에 접근했다. 이 때 “가정의 비극”의 전범으로 의식된 1912년의 번역소설 <불여귀>의 영향 하에서도 가정소설을 벗어난 근대적 자아의 각성으로 보다 근대소설에 근접한 면모를 드러내는데, 이는 ‘문학’의 장르와 결부하여 상상된 ‘공상’의 작동 방식과 관련한 것이다. 1913년 <공상문학>의 실재성과 대립하지 않는 ‘가정’과 조합된 ‘문학’에 대한 상상의 구성에서 “인간 사물의 실제에서 벗어난 공상(空想)”의 작동 방식은 “가정의 비극”을 가정소설을 극화한 가정비극 신과극과 변별시켰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봉건적 도덕률의 ‘속박’을 벗어나 “자유스승”을 추구하려는 주부의 문학 갈망이라는 당대 조선을 비약하는 여주인공이 조형될 수 있었다. 또한 <공상

문학>의 장르 기반을 표출하는 “가정의 비극”의 “연출”은 문학을 상상하는 <공상문학>의 독자적인 가치를 내포한다. 문학의 상상에 “연출”이라는 극적 양식에 대한 인식이 ‘활동사진’ ‘변사’ 등으로 무대를 환기하는 서술자의 어조와 보여주기(showing)의 서술 방식으로 장면의 묘사를 구현하게 함으로써 연극적 요소의 도입이 근대 소설의 성립을 앞당기는 전기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공상문학>은 소설과 희곡이 조우하는 근대소설 성립의 문제성과 동시에 김우진의 소설이 희곡과의 연관 속에서 출발했다는 의의를 내포하는 것이다.

1913년 <공상문학>의 ‘가정’은 ‘문학의 취미와 진의’라는 순문학적 주제와 결합되어 ‘가정’과 ‘도덕’의 조합이 고착화되는 가정비극 신과극 정착 이전의 시기 실재성에 대한 의식이 ‘가정’을 부각시키면서 다양한 결합 형태가 존재하는 시대의 특성을 드러낸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토마스 하디의 <환상을 쫓는 여인>의 영향을 이 글에서는 영감과 착상의 형태로 <공상문학>을 성립시킨 일 요인으로 전제하면서도 자신의 삶과 주변을 투영한 창작소설로 자리매김하여 번역소설·번안소설에서 창작소설로의 이행을 가능할 수 있는 의의를 규명했다. 창작소설의 구축 과정에서 문학에 대한 상상을 구성하는 ‘공상’이 서구의 소설에서 의식됨으로써 낭만적 이상성이 가미되는 형태로 전대의 전기소설과는 다른 ‘공상’의 작동 방식과 “가정의 비극”이라는 장르 기반의 상호 작용으로 가정소설 및 가정비극의 장르적 유형성을 탈피하여 보다 근대소설에 근접한 진전이 이루어졌음을 해명했다.

또한 이 글에서는 그간 전혀 알려지지 않은 1913년 김우진의 독서 목록에 <불여귀>를 추가했다. 이로써 일본어 서적이 매개하는 서양소설과 조선의 신소설과 번안소설 등 폭넓은 독서로 당대의 제약을 넘는 김우진의 문학 인식이 획득되는 지점에서 1910년대 문학이 연관되는 체계와 근대 독자를 위한 근대소설사의 첫 머리에 놓여야 할 <공상문학>의 문학적 의의가 입증되었다. 근대소설 성립 초기단계에서 실재성이 동시에 비

실재적 상상에 대한 의식으로 '공상' 개념이 장르와 결부되어 호명되었다는 역사성은 근대소설사에 기재되어야 한다. 여기에 <공상문학>의 다양한 가능성이 열리며 김우진 문학의 특이성을 1910년대 문학사에서 다각적으로 풍부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그간 논의되었던 서양문학의 독서가 일본어번역서를 매개로 연결되는 과정에서 다카야마 초규의 영향을 가시화했다. 휘트먼의 수용, '공상' 개념과 「청년문인의 염세관」을 연상하게 하는 “문스 자살” 모티프 등 다카야마 초규의 문학평론의 사유 체계와 <공상문학> 구성과의 연관성을 드러냈다. 조선의 가정에 일본식 생활 습관과 풍속이 혼재되는 <공상문학>의 “가정의 비극” 장르 관습에서도 <불여귀>의 영향을 엿볼 수 있으며 동시에 식민지 조선에 대한 애상의 정념을 “문스 자살”과 같은 상징적 모티프로 갈등과 긴장을 새겨 넣는 방식으로 일본은 이중의 형태로 각인된다. 표면에 나타난 일본어의 동화와 이면에 일본어서적을 배제하는 심리적 기제는 동일한 뿌리에서 작동하는 식민지 조선의 문화심리(mentality)의 맥락에서 서양과 조선 사이의 음영 일본의 매개에 대한 객관적 학문적 분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 일본어번역이 중계하는 서양소설의 독서가 문학에 미친 영향을 충분히 해명하지 못한 매개성 고찰은 차후의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글이 근대소설사에서의 김우진 소설의 의의를 제기하면서도 극작가 김우진이라는 문학사의 위상에서 희곡 연구자들의 논의에 포함시켰다. 김우진 문학 연구사에서 보고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출발한 이 글은 향후 문학의 변화에 따른 장르의 통섭 등을 논구하는 통합·학제적 영역으로 문학 연구의 외연을 확장하여 김우진 문학을 재조명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조중환, <불여귀> 상·하편, 경성사서점, 1912.  
 서연호·홍창수 편, 『김우진 전집』 I·II, 연극과 인간, 2000.  
 坪内逍遥, <ロミオとジュリエット>, 早稲田大学出版部, 1910.  
 高山樗牛, 斎藤信策編, 『樗牛全集』 第2卷, 博文館印刷所, 1912.  
 津金馨, 『歐美近代文豪美文抄 : 英和對譯』, 實業之日本社, 1912.

2. 단행본

권정희, 『『호토토기스(不如歸)』의 변용-일본과 한국에서의 텍스트의 '번역』, 소명출판, 2011.  
 김병철, 『한국근대번역문학사연구』, 을유문화사, 1975.  
 김영민, 『문학제도 및 민족어의 형성과 한국근대문학(1890-1945)-제도, 언어, 양식의 지형도 연구』, 소명출판, 2012.  
 박석분·박은봉, 『인물여성사』, 새날, 1994.  
 박진영, 『번역과 변안의 시대』, 소명출판, 2012.  
 양승국, 『김우진, 그의 삶과 문학』, 태학사, 1998.  
 유민영, 『비운의 선구자 윤심덕과 김우진』, 새문사, 2009.  
 윤진현, 『조선 시민극의 구상과 탈계몽의 미학』, 창비, 2010.  
 이두현, 『한국 신극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66.  
 이은경, 『수산 김우진 연구』, 월인, 2004.  
 조동일, 『한국문학통사5』, 지식문화사, 2005.  
 천정환, 『근대의 책 읽기』, 푸른 역사, 2003.  
 한국극예술학회 편, 『김우진』, 연극과 인간, 2010.  
 한림과학원편, 『한국근대신어사전』, 선인, 2010.  
 최창렬, 『개정 증보판 국어교수법』, 개문사, 1985.  
 R.L.Brett, 심명호 옮김, 『공상과 상상력』, 서울대학교 출판부, 1979.  
 Walt Whitman, 허현숙 역, 『풀잎』, 열린 책들, 2011.  
 生方敏郎, 『明治大正見聞史』, 春秋社, 1926.

3. 논문

강동수, 「흙의 철학에서 상상력의 성격과 의미」, 『철학논총』제70집4권, 새한철학회, 2012.

권보드래, 「열정의 공공성과 개인성-신소설에 나타난 '일부일처'와 '이처'의 문제」, 『한국학보』제99집, 일지사, 2000.

\_\_\_\_\_, 『소년』과 톨스토이 번역, 『한국근대문학연구』6(2), 한국근대문학회, 2005.

김재석, 「근대극 전환기 한일 신파극의 근대성에 대한 비교연구학적 연구」, 『한국극예술연구』제17집, 한국극예술학회, 2003.

김태연, 「토마스 하디의 초기소설연구」, 『인제논총INJE JOURNAL』9권1호, 인제대학교, 1993.6

나루사와 마사루(成澤勝), 「김우진의 응본 시절」, 『김우진전집』2, 전예원, 1982.

손필영, 「김우진 연구」, 국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8.

오화순, 「한·일 신파극 연구-가정비극을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2002.

유인순, 「<공상문학>에 대한 비교문학적 연구-<죽음의 승리> 및 <환상을 쫓는 여인>을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제9집, 이화여자대학교, 1987.

유민영, 선각자 김우진의 연극실험, 한국극예술학회 편, 『김우진』, 태학사, 1996.

윤일수, 「1910년대 가정비극 연구」, 『한민족문학』제42집, 2003.

조남현, 「한국근대소설에 나타난 지식인상」, 『한국지식인소설연구』, 일지사, 1984.

주현식, 「폭발의 드라마, 폭발하는 무대」, 『한국극예술연구』제29집, 한국극예술학회, 2009.

최태원, 「1910년대 신소설의 독자·대중·미디어」, 사에구사 도시카츠(三枝壽勝) 외 편, 『한국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최태웅, 해설 다눈치오 <죽음의 승리>, 『현대세계문학전집』18권, 세종출판사, 1971.

金子明雄, 권정희 역, 「'가정소설'을 둘러싼 미디어 복합—1900년대를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제64집,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7.

阿部軍治, 『徳富蘆花とトルストイ』, 彩流社, 1989.

吉田正信, 「徳富蘆花はトルストイに何を見たか」, 『異文化への視線—新しい比較文學のために』, 名古屋大学出版会, 1996.

Abstract

The Implication of 'Fancy' and the imagination of Literature  
: A Study on *Fancy Literature* of Kim Woojin

Kwon Jung-hee

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novel, *Fancy Literature*(1913), written by a playwright Kim Woojin, for its significance of the Korean literature history. So far, the study on Kim Woojin has been focused on his drama works in the framework of the modern drama history, while there has been little academic study on this novel as it was regarded merely as a practice piece. Instead, as an individual study, this novel has been studied in comparison with western novels.

Based on those previous empirical studies on this work, this paper shed light on its constituting principle and meaning, considering the element of Japanese culture which has not been mentioned so far. Furthermore, this paper looked into how the female protagonist could be created, who is a literary aspirant, loving to read western and Korean novels in the 1910s.

Creating this main character involves the issue of 'authentic love' and the awareness of novel genre. In other words,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awareness of reality to depict the realities of the contemporary Korea and the foundation of modern novel genre which was not well established at that time were expressed as the title which indicates a genre based on 'fantasy' concept. In this respect, it has been shown that this novel contains various possibilities.

Key words : Kim Woojin, *Fancy Literature*, Modern Novel, domestic tragedy, mediacy, domestic novel

접수일: 2013년 2월 10일

심사기간: 2013년 2월 15일~2월 27일

게재결정: 2013년 2월 27일